DEMO : Purchase from www.A-PDF.com to remove the watermark

의학교육과 프로페셔널리즘

김 상 현

최근 의학교육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 2003년도와 올해의 추계 한국의학교육학회의 주제도 '의학교육에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의 실천'이었다. 그래서인지 프로페셔널리즘은 이제 의학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덧 친숙한 개념이 된 듯하다.

하지만 의료사회학적 배경에서 의학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 개념을 입에 오르내릴 때면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professionalism에서 'ism'은 사전적으로 '~주의'로서 '이데올로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ideology)란 한 시대의 지배집단의 이해관계를 지지해주는 사상, 관념을 말하며, 혹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믿는 '허구화된 관념'이라고까지 정의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료프로페셔널리즘은 의사집단의 이해관계나 권익을 지지해주는 이념이 된다.

그런데, 의학교육에서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 가르치는 교육내용은 의사집단의 이해관계나 권익(rights and interests)보다는 대부분 전문직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social accountability)를 주로 가르치고 있다. 즉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개념에서는 '의사로서의 권익'을 담고 있고, 교육내용에서는 '사회적 책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개념과 교육내용 간에 심각한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프로페셔널리즘을 이야기 할 때, 느끼는 불편함의 원인 하나를 이제야 발견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의사들은 의료 프로페셔널리즘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가? 의사들의 권익인가, 아니면 사회적 책무인가, 아니면 사회적 책무와 권익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함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사회학적 입장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이고, 다른 하나는 갈등주의(conflicts theory)이다. 이들은 하나의 사회현상을 전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구조기능주의에서는 사회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들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한 부분에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사회질서를 해체시키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질

김상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BK의과학사업단
전화 : 02-2228-2507
Email : sanghyunk@yuhs.ac

병에 걸린 한 사람도 역시 제대로 자신이 맡은 기능을 하지 못하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의사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사회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의사는 사회구조적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지위와 보상을 사회가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구조기능주의 입장은 의사는 기능적 중요성, 희소성, 비용(의사가 되기까지 든 시간, 노력, 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점에서 기능주의 계층론이라고도 한다.

반면 갈등주의 입장에서는 미국사회에서 의사가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은 구조기능주의 가 주장하는 기능적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의사가 동시대에 공존했던 다른 치료자들과의 권력다툼에서 이겼으며, 의학지식을 독점적으로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근거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낮은 지위를 예로 들면서 의사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중요하다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당연히 의사의 지위가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와 같이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은 각각 어느 정도 일리는 있기 때문에 프로페셔널리즘에는 사회적 책무성 뿐만 아니라 권익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개념이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의 전문직화 과정에서 미국의사들은 그들의 권익을 위해 프로페셔널리즘을 주창했고, 그 결과 오늘날의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사들의 역사적 경험은 의사집단의 권익을 위한 의미로 프로페셔널리즘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미국의사들이 쓰는 의미의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즉 미국사회와 한국사회의 프로페셔널리즘의 의미는 사회문화적 차이만큼이나 다른 것이다.

하지만 어느 사회든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했을 때 미국과 한국 의사들에 대한 기대와 사회적 역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서구적 의미와 한국적 의미의 같고 다름을 인식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노르웨이 유럽의학교육학회(AMEE) 워크숍에서 일본의 프로페셔널리즘의 원형이 무사도(武士道)에 있다고 주장한 일본의사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